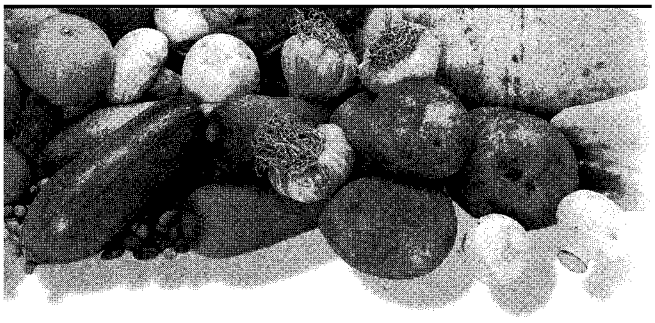

집중조명

안전농산물! 意識이 중요하다(Ⅱ)

'안전한 농산물'만이 '안전한 우리식탁' 지킨다

'99부적합 농산물 조치 우수사례 소개

-홍보부-

소득이 높아질수록 질 좋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갈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본란에서는 지난해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을 받았음에도 소탐(小貪)하지 않고 자발적인 출하연기나 자율폐기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됨은 물론 안전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한 부적합 농산물 조치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만이 '안전한 우리식탁'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편집자 註〉.

CASE 1

미나리 출하연기

이건용-전남 순천 농가

전남 순천시 인월동에서 다년간 미나리를 재배(6백평)해온 이건용씨는 사실 농산물안전성에 대해 별다른 관심 없이 평소 관행대로 미나리를 재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안전성조사 결과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잔류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결과처리를 어떻게 하며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고심하던 중 농관원 출장소 직원이 현장을 방문, 대화를 통하여 4. 20일경에 출하예정이었던 미나리를 4. 27일까지 출하를 연기한 후 4. 28일 출하했다.

이후로 이건용 농가는 미나리를 포함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할 때는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면서 의문사항은 농관원 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수시로 문의를 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 출장소 직원의 농약사용실태조사나 시료채취 등 안전성조사 업무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이웃 농가에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CASE 2

열무 자율폐기

임인호-광주광역시 광산구 농가

광주 광산구에서 10여년간 시설채소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임인호 농가는 평소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하절기에 속성재배하는 열무, 상추 등은 가급적 농약사용을 자제하는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라고 본인 스스로도 자부해 왔다.

그러나 출하시기가 임박했을 때 작황이 좋지 않자 포전(圃田, 채소밭)매매 중간상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부득이 약제를 살포하였다. 그런데 농관원 출장소에서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었다.

출하연기(안전성 확보기간 28일)시 꽃대가 추대되어 상품성이 없음을 스스로 판단한 임씨는 포전거래 상인에게 받았던 매각대금 50만원 전액을 환불하고 7월 1일 안전성조사원 입회하에 재배중인 열무 전량(660m²)을 자율폐기 하였다.

이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 공급해야 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과 참다운 농민상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사실이 주변 작목반에 알려져 안전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광주 열무의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CASE 3

시금치 자율폐기

이찬재-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농가

경기도 광주에서 삼형제가 함께 시설재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찬재씨는 7월 7일경 생육중인 시금치의 거세미나방 방제를 위하여 약제를 살포하였다. 그런데 7월 14일 농관원 광주출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엔도설판 성분이 4.25ppm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확보 기간이 58일(9. 19)로 나타나자 안전하지 못한 농산물을 출하하면 소비자의 건강도 문제지만 부적합농산물을 출하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스스로 0.3톤을 폐기하고 품질인증 농가를 견학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농관원 광주출장소에서는 이같은 이찬재씨의 뜻을 받아들여 이씨 농가를 포함한 소속 작목반원들을 품질인증 농가를 견학하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농약정보